

1·28 상하이사변과 윤봉길의거의 한중공동항전

이 재 령*

1. 들어가는 말
2. 윤봉길의 상하이의거 배경
3. 상하이사변과 윤봉길의 상하이의거
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20세기 전반, 한국과 중국은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고, 식민지 혹은 반식민지 상황을 탈피하려는 노력도 공유하였다. 이 시기의 한중관계는 지리적 역사적 긴밀성과 문화적 연대감의 바탕 위에 반외세투쟁이란 공통과제를 수행하려는 독립

*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중국현대사 전공

운동과 항일전쟁을 매개로 삼아 우호, 협력, 연대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특별히 중국의 인적 물적 지원과 협력은 한국의 독립운동 추진에 큰 힘이 되었다. 그렇지만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세력에 대한 국민당정부의 이중적 대응이나 임정승인의 보류, 한국광복군의 예속화 등은 우호적인 언론과 물질적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¹⁾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한중관계의 이미지보다 일본침략에 맞서 함께 싸운 경험을 통해 그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국독립운동은 독립전쟁, 무장투쟁, 의열투쟁, 외교활동, 실력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독립군을 직간접으로 양성하고, 동원하여 일본군과 싸운 무장투쟁과 일제의 침략 원흉을 암살하거나 식민통치기구를 파괴하는 의열투쟁은 중국 관내와 만주지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의 외교·경제·군사 등의 지원과 협력으로 가능하였다. 이 글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대표적 의열투쟁인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의거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목적, 성격, 의의 등을 검토함으로써 일제강점기 한중 공동항전의 실상을 규명하려고 한다.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에서 윤봉길의거는 안중근, 이봉창의 의열투쟁과 함께 많은 성과들이 축적되었다. 주로 윤봉길의사의 수화과정과 항일독립론,²⁾ 의거 이전의 농민운동 활동,³⁾ 윤봉길의거의 기획과 실행, 결과 등의 진상을 밝히고, 동시대 언론보도와 의거 후의 현양 자료를 분석하였다.⁴⁾ 이를 통해 윤봉길의사의 생애와 의거의

1) 이재령, 「항진시기(1937~1945) 국공양당의 한국관 - 중앙일보·신화일보를 중심으로-」, 『中國學報』 제56집 (한국중국학회, 2007. 12), 343쪽.

2) 金祥起, 「尹奉吉의 修學과정과 항일독립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67집(2013년 겨울호).

3) 박용욱, 「윤봉길의사의 농촌운동」, 『梅軒學報』 제1집,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매헌연구원), 2010; 김형목, 「윤봉길의 현실인식과 농촌계몽운동」, 『충청문화연구』 제7집.

전체상을 밝히고 그것의 현실적 의미와 역사적 의의를 부여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었다.⁵⁾

한국학계는 일반적으로 윤봉길의거가 1931년 만보산사건 이후 악화일로로 걷던 한중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공동항전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과 침체의 늪에 빠진 국내외 독립운동을 다시 회복시킨 전환점으로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⁶⁾ 한편 중국학계는 신민주주의혁명사의 시각으로 상하이사변을 기술하면서 윤봉길의거에 대해 국제적 우호세력의 지원 중 하나로 이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기획과 역할을 강조하였다.⁷⁾ 또 다른 중국연구자들은 의거의 준비, 계획단계부터 중국인들이 깊숙이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주장하며, 이를 ‘중조우의(中朝友誼)’의 차원에서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⁸⁾ 중국연구자들이 ‘중국역할론’의 근거로 제시한 주요 내용은 중국인 왕야차오(王亞樵)가 한인애국단을 재정적

-
- 4) 한상도, 「해방정국기 윤봉길 의거의 현양과 계승의식」, 『梅軒學報』 제1집, 2010; 김상기, 「윤봉길의 상하이의거에 대한 일본 언론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2집, 2009; 한시준,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2집, 2009.
- 5) 윤봉길의거의 개요 및 의의는 윤병석, 「윤봉길의사의 상하이의거와 가나자와 순국」, 『梅軒學報』 제1집, 2010; 신용하, 「윤봉길의사의 상하이의거와 그 역사적 의의」, 같은 책; 신주백, 「상하이사변 전후의 한국민족운동과 윤봉길의거」, 같은 책; 조범래, 「한인애국단과 윤봉길의사」, 같은 책; 신용하, 「윤봉길의사의 상하이의거와 그 역사적 의의」, 같은 책, 참조.
- 6) 신용하, 위의 글, 60쪽.
- 7) 李新·陳鐵健, 『中國新民主主義革命史長編 抗日潮流의起伏 1931~1935』, 上海人民出版社, 1993. 219쪽.
- 8)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로는 沐濤·孫科志, 『大韓民國臨時政府在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2; 華永正, 「中韓義士巧計炸日首」, 『志苑』, 安徽省地方誌 編纂委員會, 1993; 潘石英 主編, 『深厚的友誼』 世界知識出版社, 1993; 石源華, 「尹奉吉義士與虹口將學」, 『韓國反日獨立運動史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沈立行, 「一二八事變後的虹口公園爆炸案」, 『百年紀實』, 2005; 李充陽, 「尹奉吉義學的歷史性」, 『梅軒學報』 제1집, 2010; 邵雍, 「朝鮮志士與中國社會—尹奉吉義學爲中心」, 같은 책 등이 있다. 윤봉길의거의 중국측 ‘역할’에 관해서는 金光載, 「尹奉吉의 上海義學와 ‘중국측 역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1996. 참조.

으로 지원하였고, 의거 전부터 일본 특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따 돌리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사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의거 후 김구 등이 일본경찰의 추격과 포위를 피해 쿤산(昆山)에 있는 왕야차오의 근거지로 도피하여 보호받은 것을 들고 있다.⁹⁾ 그러나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인애국단은 김구의 주도로 조직되었고, 상하이 의거 또한 주로 김구, 김홍일, 윤봉길 등의 활동으로 밝혀졌다.¹⁰⁾ 현재 윤봉길 의거를 김구 및 한인애국단의 독자적인 투쟁으로 보는 것이 한국학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이런 견해 차이는 윤봉길 의거의 기존 연구가 ‘한중 연대의 회복과 강화’란 결과만을 강조하고, 의거가 기획, 준비되어 실행에 옮겨지는 동안 중국의 내부 상황 및 현실 배경에 관한 총체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930년대 한중공동항전의 출발점인 윤봉길 의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국의 ‘역할’을 파악하려면 그 시기 중국의 내부모순 및 한국독립운동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¹¹⁾

본 연구는 기존 성과를 토대로 윤봉길 의거의 배경이 된 만보산사건,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 만주사변, 상하이사변의 내용 및 그것이 한중관계와 한국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상하이에 머물며 의열투쟁을 주도한 김구나 여기에 호응하여 사생취의(捨生取義)의 길을 가려던 윤봉길에게 일본의 침략행위와 중국의 대응이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윤봉길 의거를 통해 한중간의 상호인식과 연대관계가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추적할 것이다. 요컨대 상하이 의거의 배경과

9) 華永正, 위의 글, 7~8쪽; 石源華, 위의 글, 270쪽; 沐濤·孫科志, 앞의 책, 79~80쪽.

10) 金九나 한인애국단 자료에 王亞樵의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논문에서 주장하는 王亞樵와 김구의 관계는 王亞樵와 남화한인청년연맹의 관계로 판단하고 있다.(김광재, 위의 글, 38쪽)

11) 신용하, 앞의 글, 37쪽.

실행 및 거사 이후의 반향을 정리하여 윤봉길의거가 갖는 한중 공동항전의 실체와 의미를 이해할 것이다.

2. 윤봉길의 상하이의거 배경

가. 윤봉길의 중국망명

윤봉길은 1908년 5월 19일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에서 부친 윤황(尹璜)과 모친 김원상(金元祥) 사이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7살이 되던 해에 큰 아버지 윤경(尹炯)에게 『천자문』·『동몽선습』·『소학』 등 한문을 수학하였다. 그는 11살이 되던 1918년 향리에 있는 덕산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신학문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가 이 학교를 다니면서 일제의 식민교육에 회의를 느낄 무렵 3·1운동이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예산에서도 3월 3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윤봉길은 덕산장터에서 3·1만세운동을 직접 목격한 이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식민지교육이 강요되는 공립보통학교 생활을 포기하고 부모님의 양해 하에 최병대(崔秉大)선생 문하에서 다시 한학을 배웠다. 아울러 3·1운동 이후 일제의 기만적인 ‘문화통치’ 아래 부분적인 언론 자유가 허용되면서 간행된 《동아일보》·《조선일보》등의 신문과 『개벽』 잡지 등을 통해 신학문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였다. 윤봉길은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돈을 아껴 예산 읍내에서 새로운 잡지 등을 구해 정독하는가 하면, 동생 남의(南儀)에게 수시로 부탁하여 새로운 서적을 구해 오도록 하여 정독하였다. 14살이 되던 1921년부터 윤봉길은 오치서숙(烏峙書塾)이라는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 그는 유학자 매곡(梅谷) 성주록(成周錄)의 문하에서 사서삼경, 고문

진보, 국조명신록 등을 배우고 익히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¹²⁾ 이렇듯 윤봉길의 유년기 학습활동은 식민지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분위기 아래 한학과 신학문을 병행하였다. 특히 그는 신문·잡지와 각종 서적을 통해 현실을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

윤봉길은 17살이 되던 1924년에 서당의 훈장이 되어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고, 아울러 농촌계몽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는 고향 시량리에서 문맹퇴치를 위한 야학을 시작으로 점차 농촌계몽운동과 농촌부흥운동을 전개하는 등 농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운동의 교재를 저술하고, 월진회나 독서회 등을 운영하며 고향의 청년·농민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활동은 일제의 주요 감시대상이 되었고,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고민하던 중 마침내 1930년 3월 농민운동의 결실을 보려면 먼저 조국의 독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고 망명길에 올랐다.¹³⁾

윤봉길은 중국망명을 결심하면서 스승 성주록의 권유로 가입했던 유교부식회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던 상하이 임시정부를 목적지로 삼았다.¹⁴⁾ 1930년 3월 6일 윤봉길은 “사내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丈夫出家生不還)”란 글을 남기고 망명길에 올라 이틀 뒤 선천(宣川)에서 피검되어 10여 일가량 구금되었다가 3월 31일 압록강을 건너 안동에서 기선을 타고 4월 상순 중국 칭다오(靑島)에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한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인 송죽당(松竹堂) 주인의 소개로 평텐(奉天)로 중원세탁점에서 일하였다. 이듬해 1931년 4월 3일 윤봉길은 칭다오에서 상하이로 떠나 한 달가량의 긴 여정 끝에 5월 8일 상

12) 윤봉길의사의 학습 및 활동이력은 조범래, 앞의 책, 159~163쪽 참조.

13) 조범래, 위의 책, 185쪽.

14) 김상기, 앞의 글, 8~10쪽.

하이에 도착하여 곧 프랑스 조계의 대한인교민단 사무소를 찾아 가서 김구·김동우 등과 만나 독립운동에 참여할 뜻을 전하였다.¹⁵⁾

윤봉길은 상하이로 가는 도중 모친에게 보낸 안부편지를 통해 일제의 탄압 속에서 시들어가는 조국강산의 동포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사랑하는 부모와 처자를 두고 상하이를 향해 떠난다고 밝히고 있다.¹⁶⁾ 그는 17, 8세부터 신문·잡지를 열독하였는데 “조선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자력으로 훌륭하게 통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일본에게 복종하고 그 통치 아래 있어야 하는가? 세계 문명이 진보하는 오늘날 타국에 합병되어 있는 것은 치욕이라는 생각을 품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 무렵부터 독립운동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자신이 추진하고 있던 농민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신문지상에서 상하이에 독립운동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곳으로 가서 한국독립을 위하여 활동하려고 중국으로 떠났다.¹⁷⁾ 청년시절부터 윤봉길은 주로 신문·잡지를 통해 국내외 정세와 사회현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망명을 단행한 것이다.

윤봉길은 상하이에 도착한 후 생활을 위해 먼저 교포 박진(朴震)이 경영하는 중국종품공사(中國鬃品公司)에 취직하였다. 이곳은 말총으로 모자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공장인데 윤봉길은 한인 노동자 17명으로 한인공우친목회(韓人工友親睦會)를 결성하고 회장으로 활동하였다.¹⁸⁾ 그가 이곳에 근무하는 동안 매주 1회씩 공장을 찾아 온 김구를 중심으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시국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그뿐 아니라 윤봉길은 사적으로 김구와 수차례 만나 서로

15) 內務省保安課, 「上海=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顛末」(昭和 7年 7月), 매헌윤봉길전 집편찬위원회 편, 『매헌윤봉길전집 제2권 상하이의거와 순국』, 매헌윤봉길의사 기념사업회, 2012. 524쪽.

16)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매헌충의록』, 1982. 123쪽; 조범래, 위의 책, 188~89쪽

17) 「上海=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顛末」(昭和 7年 7月), 위의 책, 519쪽.

18) 조범래, 위의 책, 191~94쪽.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상하이에 온 목적을 밝히고, 이봉창 의사의 도쿄의거와 같은 일이 필요할 때 자신이 담당하겠다고 자원하였다.¹⁹⁾

나. 만보산사건과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

윤봉길이 상하이에 도착한 1931년 5월은 마침 일본이 만주침략을 실행하기 위하여 구실을 만들고자 일으킨 만보산사건이 시작된 시기였다.²⁰⁾ 만보산은 창춘(長春)시 북쪽 30km에 위치한 창춘현 3구지역으로 중국정부가 완전하게 관할하고 있는 땅이었다. 그런데 1931년 4월에 장농도전공사(長農稻田公司)의 지배인인 하오용더(郝永德)가 만보산지구의 땅 500경을 10년 동안 빌리기로 한 후 현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땅을 한국인들에게 빌려주어 농사를 짓게 하였다. 약 180여 명의 한국인들은 이 땅을 경작하기 위하여 만보산 부근의 이통허(伊通河)에 둑을 쌓고 폭과 깊이가 3장, 길이가 약 20여리 되는 수로를 파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미 일구어 놓은 땅을 갈라놓게 되고, 또한 많은 땅을 점거하게 되었으며 만일 수로가 범람하면 중국 농민의 농토가 수몰될 위험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중국 농민들은 대표를 현정부에 보내 창춘현 정부가 나서서 한국인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중지시켜 주도록 요청하였다.

현정부는 분규를 피하기 위하여 창춘 주재 일본영사관과 교섭을 벌여 이미 파놓은 곳을 메우고 뚝 쌓는 일을 중지시켜 주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영사는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한국인들을 끌어들였고, 이 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5, 60여 명의

19) 「上海=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顛末」(昭和 7年 7月), 앞의 책, 518쪽.

20) 만보산사건의 개요는 신승하, 『중국현대사』, 대명출판사, 1992. 292~93. 참조.

사복 경찰을 동원하였다. 결국, 7월 1일 만보산일대의 농민 500여 명은 공사가 다 끝나가는 것을 보고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수로를 메우기 시작하여 쌍방은 충돌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중국 농민들이 다수 부상당하고 일본은 이 충돌을 이용하여 북만주지역으로 출병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일본은 한국의 각 신문에 이 사실을 확대 과장하여 보도하게 함으로써 국내에서 중국인 배척폭동이 크게 일어나 많은 중국인이 살해되고 부상당하였다.²¹⁾

이후 중국에서 만보산사건과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은 주요 현안으로 사건배경, 사태추이, 처리방안 등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다.²²⁾ 국민당은 만보산에서 처음 발생한 충돌과 희생에 대해 소극적이었지만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은 신속히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민당은 이 사건을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 나쁜 감정을 조장하여 중국인배척폭동을 일으킨 일본의 의도된 도발행위로 보았다.²³⁾ 난징정부는 배일여론을 수용하면서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국제법에 의한 외교적 항의와 교섭절충 및 경제단교 등의 외교조치를 신속히 취하였다.²⁴⁾

공산당은 일제의 계획적 조직적 음모로 인식했지만 그 목적이 단순한 대륙침략에 있기보다 중국에서 급속히 발전해 가는 반제투쟁을 진압하고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적대적 민족 감정을 조장하여

21) 만보산사건과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은 朴永錫, 『萬寶山事件研究』, 아세아문화사, 1978; 閔斗基, 「萬寶山事件(1931)과 韓國言論의 對應-相異한 民族主義的時角-」, 『東洋史學研究』 제65집(1999. 1), 참조.

22) 이재령, 「남경국민정부시기 중국의 한국인식 - 만보산사건에 관한 여론동향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31집 (중국사학회, 2004. 8), 270~74쪽.

23) 「蔡委員元培在中央黨部紀念週對萬寶山事件及朝鮮排華慘案之重要報告」, 『萬寶山事件及朝鮮排華慘案』, 中國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宣傳部印, 南京, 1931, 2쪽; 「中央宣傳部對萬寶山事件及朝鮮排華慘案宣傳大綱」 같은 책, 12쪽.

24) 「哈爾濱黨務特派員辦事處通電」, 『萬寶山事件及朝鮮排華慘案』, 77쪽.

양자의 반일 공동투쟁전선을 파괴하는데 있다고 보았다.²⁵⁾ 민간단체들도 곧바로 일본배척운동을 전개했는데 주요 도시마다 상인·학생·문화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각계반일원교구국회(各界反日援僑救國會), 대일원교위원회(對日援僑委員會) 등이 앞 다투어 배일성명을 발표하였고, 경제단교가 가장 일반적 수단으로 동원되었다.²⁶⁾

중국신문들은 이미 1931년 6월 중엽부터 만보산지역의 만주이주한인과 중국농민들 사이의 갈등을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본래 만보산 일대는 좋은 농지조건으로 만주한인과 중국농민의 관심이 쏠렸기 때문에 충돌이 잦아 일찍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²⁷⁾ 결국 7월 1일 만보산지역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곧이어 터진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은 7월 한 달 동안 중국의 주요 신문지면을 채웠다.²⁸⁾ 1931년 5월 8일 상하이에 도착한 윤봉길은 중국신문 및 거류한인과의 교류를 통해 만보산사건에 관한 소식을 접하였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였다.²⁹⁾

중국신문의 만보산사건에 관한 기사 내용과 논조는 운영주체와 정치성향에 따라 달랐다. 먼저 국민당 관영지인 《중앙일보》는 책임

25) 孫乘會, 「萬寶山事件과 中國共產黨」, 『東洋史學研究』 제83집, 22쪽.

26) 『外交部稿萬寶山案』 373-1 20(目錄統一編號 172-1 案卷編號 1072) · 『外交部稿 萬寶山案』 373-1 第6冊(目錄統一編號 172-1 案卷編號 1072-6), 臺灣國史館 所藏.

27) 長春韓人占種案始末, 《中央日報》(1931.6.22).

28) 국민당의 해외기관지인 少年中國晨報도 만보산사건에 관하여 7편의 논설과 100여 건의 기사를 썼다. 주요 논설로는 「萬寶山事件及中韓人交惡之解釋」(1931.7.13)·「日本帝國主義者與萬寶山案」(1931.7.15~16)·「國民應急起監視對日外交」(1931.7.30~31)·「日人侵略東北之急進」(1931.8.1)·「哀朝鮮」(1931.8.21) 등이 있다.

29) 당시 중국의 주요 신문은 국민당기관지인 《中央日報》, 《民國日報》와 上海에서 발행된 《申報》·《時事新報》·《新聞報》·《時報》, 天津의 《大公報》 등이 있었다. 민영언론 중 《대공보》와 《신보》의 역사가 오래되고 영향력도 컸다. 《대공보》는 친국민당 성향인 반면 《신보》는 비판적이었고 판매지역이 전국적으로 가장 넓어 독자층이 광범위하였다. 《신문보》는 상공인 독자층이 두터웠고, 《시보》는 상하이에서 판매부수가 가장 많았으며, 《시사신보》는 비판적 성향이 강하여 학생독자의 환영을 받았다. 袁殊, 「上海報紙之批評」, 張靜廬, 『中國現代出版史料』 乙編, 北京: 中華書局, 1959. 131쪽.

소재와 관련하여 “사건의 원흉은 음흉하고 표독한 일제이고 한국인은 여기에 이용당한 허수아비임으로, 형법으로 말한다면 한국민족은 비록 직접 참여한 정범이지만 일본사람은 뒤로 숨은 원흉”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한국민족은 이미 일본에 있어서 “소나 말과 다름없는 자유를 잃은 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원흉은 일제이지 자유를 잃은 한국민족이 결코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³⁰⁾ 즉, 현실적으로 식민지 상태인 한국의 암울한 상황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일본에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는 “조선농민들에 대해 역사상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조선을 배척할 마음이 없음으로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화해하자”라고 하여 공개적으로 타협의지를 표명하였다.³¹⁾ 아울러 일제의 의도된 침략정책에 도구로 혹사당한 한국인에게 연민과 동정을 표시하였고,³²⁾ 다음과 같이 한중 우호관계를 깨트리려는 일본의 책략을 경계하였다.³³⁾

우리는 알고 있다. 조선과 중국이 몇 천 년의 역사관계를 갖고 있고, 문화·풍습·습관 등이 모두 동일하며, 일본은 조선민족이 중국민족이며 조선문화가 중국문화라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에 반감을 일으켜 조선인이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번 참사는 바로 일본의 음모가 성공한 것이다.³⁴⁾

《중앙일보》는 식민통치를 받고 있는 한국과 반식민지 상태의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 전선에 서있으며 공동투쟁의 동지로 보았다. 즉 “영국·독일·이탈리아·일본·러시아 등이 백색제국주의라면

30) 「哀朝鮮」, 《中央日報》(1931.7.31).

31) 中央社吉林九日電, 《中央日報》(1931.7.11).

32) 「日人欲重演濟南慘案耶?」, 《中央日報》(1931.7.7).

33) 朝鮮暴動已止 政府派汪使赴鮮慰問僑胞, 《中央日報》(1931.7.11).

34) 「打倒日本帝國主義先應充實我們的實力-樓桐孫在南京市黨部的講演」, 《中央日報》(1931.7.21).

중국·한국·안남(베트남)·터키 등은 모두 도마 위의 고기로서 누구에게나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⁵⁾ 이처럼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압박을 받는 ‘형제의 나라’이기에 한국의 적은 곧 중국의 적이며, 서로의 도움과 협력이 유일한 공존공생의 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만보산사건은 일종의 집안싸움으로 일본에게 침략의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극소수의 우매한 한국인들이 적군과 아군도 분간하지 못한 채 일본의 이간질에 속아서 두 민족 간의 혈육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³⁶⁾

만보산사건 이후 중국의 대한인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거 속국이었던 한국인에게마저 무시당하고 폭력대상이 된 것에 대한 당혹감과 자괴감이다. 아래와 같은 텐진(天津)시당부 대표의 발언에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³⁷⁾

오늘 우리는 침통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현재 우리의 환경이 제국주의의 학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종인의 학대까지 받아야 하는가.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이번에 한국인은 일본제국주의의 꼬드김에 넘어가 우리 중국인을 2천명 이상이나 참사하였다. ……우리나라 영사관까지 한국농민에 의해 파괴되었다. 이렇게 큰 치욕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매우 가슴 아프다.

이 시기의 중국인들은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한 것이나 자신들을 끊임없이 침략하는 것에 대해 국가적 자존심과 위신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그런 까닭에 중앙일보는 한국민족의 폭력적인 화교배척운동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일으킨 한국인들에 대해 격한 분노와 더불어 깊은 연민을 나타내며 사실상 일본 식민지정책의 선봉대란 인식이 중국인의 보편적 여론

35) 張元, 「由韓人排華問題說到赤白色帝國主義的聯合對華政策」, 《中央日報》(1931.7.19).

36) 「哀朝鮮」, 《中央日報》(1931.7.31).

37) 津市黨部爲萬韓兩案開市民極代表大會 劉不同報告, 《中央日報》(1931.7.20).

이었다.

만보산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대표적 민영일간지인 《대공보》나 《신보》의 논조는 관영언론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민당에 우호적이던 《대공보》는 의례적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³⁸⁾ 무엇보다 사건배경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침략성을 강조하면서도 관영언론과 달리 중국 내부의 문제점 곧, 동북정권의 일관성 없는 한인정책이나 지방 관리의 무능력 등을 심각하게 제기하였다.³⁹⁾

한편 《신보》는 사건배경과 관련하여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이란 외부 요인을 지적하면서도 《대공보》와 마찬가지로 내부 요인에 상당한 비중을 두었다. 해결방안도 난징정부의 혁명외교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지만 자국 문제에 관한 치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한 자기 검증으로부터 찾고 있다.⁴⁰⁾ 이런 점은 《중앙일보》가 일본의 침략의도를 반복 거론함으로써 외부요인을 부각시킨 것에 비하여 내부요인을 중시한 것이다.

또한 관영언론은 일본의 만주침략에 따른 정치적 군사적 의도를 강조하였지만 《신보》는 한국의 화교경제에 주목하였다. 즉, 한국화교의 과도한 경제력을 시기 질투한 한국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몰아낼 생각을 하였고, 일본 식민당국에 의해 조장된 측면이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만보산사건과 한국에서의 중국인 배척폭동은 표면상 연루관계에 있지만 실재는 각각 별도로 배태된

38) 관련논설로는 「東北對外關係之前途」(1931.7.1)·「知彼知己」《大公報》(1931.7.7)·「緊急善後與根本考慮」(1931.7.11)·「再論日本大陸政策」(1931.7.12)·「日本答覆朝鮮排華案抗議」(1931.7.15)·「幣原認禍源在宣傳」(1931.7.18)·「朝鮮案與寧案韓案比較觀」《大公報》(1931.7.28) 등 모두 14편이 있다.

39) 「萬寶山案究竟如何」《大公報》(1931.8.5).

40) 「嗚呼滿蒙」, 《申報》(1931.7.10.); 「人侮與自侮(1)」, 《申報》(1931.7.14.); 「研究東北(1)」, 《申報》(1931.7.16).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⁴¹⁾ 그런 가운데 《신보》는 이 사건으로 인한 모든 처벌과 배상은 일본에게 따질 것이므로 한국인은 사건 전말에 관한 증거를 공개하여 중일교섭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협조해줄기를 바랐다. 또한 무식한 폭도들을 지도, 교육함으로써 사건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²⁾

《신보》는 당시 유행하던 한국인의 만주 이주에 대하여 일본의 힘만 믿고 탈법행위를 저지르며 중국농민을 헐박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더욱이 불량한 한국인들은 공산당을 이용하여 국경을 어지럽히고 토비세력까지 이용하여 상인을 약탈하며 중국인을 헐박하고 있다면서 식민지란 이유만으로 한국인이 압박받는다 고 동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다.⁴³⁾ 이처럼 만보산사건을 둘러싼 《신보》의 한국관에는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하였고, 만주거류 한국인은 외교 및 경제적으로 중국 농민과 갈등, 충돌을 일으키는 분쟁요인의 이미지가 강하였다. 그러므로 《신보》와 《대공보》는 정도의 차이일 뿐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였다. 만보산사건 이후 중국 언론은 항일투쟁이란 현실적 필요에 의해 우호와 연대를 내세웠지만 식민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크게 확산된 것이다.

만보산사건의 처리를 위해 난징정부는 일본과 외교교섭을 하면서 최저 요구가 관철되도록 민간조직을 주축으로 경제단교를 실행하고, 동북지역에 대한 일본의 특수 권익을 취소시키려 했지만 모두 무산되었다. 애당초 일본은 무력에 의한 만주·몽고지역의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교절충으로 조용히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던 국민당의 대응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일제의 대륙침략 수단으로 이용된 만주이민의 당사자이며 중국인배척

41) 「再論萬寶山案」, 《申報》(1931.7.7).

42) 「告朝鮮民族」, 《中央日報》(1931.7.14).

43) 「異哉所爲被壓迫」, 《申報》(1931.7.8).

폭동의 가해자인 한국인에 대한 중국정부와 중국인들의 인식은 과거와 사뭇 다른 양상을 띠었다.⁴⁴⁾ 더욱이 일제가 만보산사건을 조작하여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을 유발시킴으로써 한국과 중국 양 민족을 이간시키는데 성공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나쁜 감정과 적대적 행동이 확산되었다. 당시 중국인의 혐한 감정은 상하이거류 한인이 겪은 아래와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⁵⁾

당지(상하이-인용자) 거주 한인 김재훈(金在勳)이란 자가 본년(1932년-인용자) 1월경부터 상하이시 고담로 일본고등여학교 부근에 공장을 설비하고 오로지 중국 상대로 한국 개성인삼의 상거래를 하고 있었던 바, 본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거래 계약중인 중국인 단골처로부터 시상회의 협정에 의해 부득이 하다고 하며 본월 14일 계약을 파기하고 상거래를 거절해 온 것이 8건에 달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만보산사건과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의 여파로 한중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에 대한 증오와 적대행동이 만연하게 되었다. 당시 국외 한국독립운동의 가장 큰 거점은 만주와 중국 관내로, 중국 당국과 중국인들의 묵인과 이해, 협조 없이는 활동이 곤란하였다. 그런데 만보산사건 이후 중국인들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묵인이나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오히려 한국인들을 극도로 증오하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다. 만주사변과 중국의 대응

일제의 의도대로 만보산사건이 한중 공동연대에 심한 균열을

44) 이재령, 앞의 글(2004), 378쪽.

45) 『韓國民族運動史料(中國篇)』, 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6, 688쪽.

가져온 후 곧바로 9·18 만주침략이 발생하였다. 난징정부의 초공전에 맞서 공산당 홍군의 저항이 한창이던 1931년 9월 18일 야간에 평톈 선양(瀋陽) 북쪽의 남만주철도 류타오거우(柳條溝) 부근의 노선이 폭파된 것을 계기로 관동군은 일제히 북대영(北大營) 및 그 밖의 동북변방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였다. 중국측이 저항 없이 철수했기 때문에 이튿날 19일에는 관동군이 선양시 전체를 점령하였다. 이로부터 불과 1주일 이내에 일본군은 30여 곳을 점령하고 랴오닝(遼寧省)·지린성(吉林省)의 대부분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갔다. 관동군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11월에는 헤이룽지양성으로 진공하여 성정부 주석 마잔산(馬占山) 군대의 저항을 물리치고 성을 점령했으며, 1932년 1월 초에는 금주도 점령했다. 이렇게 하여 러허성(熱河省)을 제외한 만주 전토가 거의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갔다.⁴⁶⁾

9월 22일 일본관동군 참모부는 참모장 미야케 코지(三宅光治)의 획책아래 만주에 독립 국가를 세워 통치하려는 「만몽문제해결안」을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일본)의 지지를 받고 동북 4성 및 몽고를 영역으로 하며 선통제(宣統帝)를 영수로 하는 중국 정권”을 수립하기로 결의하였다.⁴⁷⁾ 이후 관동군은 세이온 이타가키(板垣征四郎) 참모를 중심으로 각지의 특무기관과 일부 대륙낭인들을 이용하여 정략적인 모략을 전개하며 만주 각 지역에서 괴뢰정권을 수립하였다. 일본은 1932년 1월 6일 「중국문제처리방침요강」을 제정하고 각 성의 괴뢰정권을 병합하여 일본의 조종 아래에 둘 수 있는 새로운 통일정권을 수립하기로 하였다.⁴⁸⁾ 그리고 2월 16일 동북 3성이 선양에서 연석회의를 소집하여 동북행정위원회를 성립시키고 국민당정부와 결별 및 동북지역의 완전 독립을 선포하였다. 2월

46) 姬田光義·阿部治平 外著, 『中國近現代史』, 일월서각, 1985. 284쪽.

47) 유신순 지음 신승하 외 옮김, 『만주사변기의 중일외교사』 고려원, 1994, 265쪽.

48) 유신순, 같은 책, 272쪽.

25일에는 정식으로 푸이(溥儀)를 집정으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여 만주국이라 국호를 정하고 대동(大同)이란 연호와 창춘을 수도로 정하였다. 그런데 일본인이 고문이나 중요 요직을 맡고 있어서 모든 일을 일본인이 처리하였다.⁴⁹⁾

만주사변은 일본의 중국대륙 침략을 알리는 것으로, 반장세력 및 공산당과 싸우고 있던 난징정부에 큰 타격을 주었다. 동시에 중국인의 위기감과 애국심을 자극하였으며,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세력에게는 위기이자 항전의 새로운 기회였다. 대외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난징정부는 장제스의 ‘선안내후양외(先安內後攘外)’정책으로 대응하며 초공전과 내정 개혁에 주력하였다. 일본군에 대해서는 저항하지 않고 직접 교섭도 하지 않으며 정면충돌을 피하였다.⁵⁰⁾ 만보산사건의 후유증으로 중국내 대한감정이 악화되었고, 일본의 만주침략이후 대응책을 놓고 중국내 여론이 분분하던 때 윤봉길은 중국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신문을 통해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있었다.

당시 중국 언론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정부정책을 옹호하여 ‘안내’를 강조한 부류와 ‘양외’에 치중하여 즉시 항일을 주장하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관영언론은 당연히 전자에 속하였고 민영일간지 중 《대공보》가 대표적으로 정부정책을 지지하며 협조관계를 유지하였다.⁵¹⁾ 후자를 대표한 민영신문으로는 《신보》를 들 수 있는데 만주사변 개시부터 항일여론을 주도하여 발행인 스량차이(史量才)가 암살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발행부수가 가장 많던 《신보》는 만주사변이 발생하기 전인 8월부터 이미 일본의 동북지방 침략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 요지는

49) 신승하, 위의 책, 297~98쪽.

50) 장제스는 만주의 만보산사건 이후 「국민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고 “攘外는 먼저 安內를 하여야 가능하며, 썩은 것을 제거하여야 해독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른바 先安內後攘外정책을 처음으로 표방하였다. 『蔣總統言論彙編』第21卷, 臺北: 正中書局, 1957, 14쪽.

51) 「今日何日」, 《大公報》(1931.11.16)

일본이 전통적으로 중국 대륙을 차지하려는 정책을 가졌는데 먼저 동북 3성을 빼앗은 후 화북으로 진입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이었다. 마침내 일본 침략군이 동북 지역으로 들어오자 《신보》는 마잔산 군대의 용감한 저항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장제스의 부저항정책을 비판하고, “현재 정부의 당면과제는 첫째, 어떻게 남의 나라로부터 모욕을 막아낼 것인가? 둘째, 어떻게 국내의 평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하여 ‘적극 대응론’을 폈다.⁵²⁾

《신보》는 사건 진상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보도하면서 가장 먼저 ‘내전중지’를 촉구하고 공동항일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⁵³⁾ 또한 항일구국을 위해서는 민권의 제고, 청렴한 정부의 건설, 민중의 무장, 실업계획의 실행, 교육개혁, 재해지역의 부흥 등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당권이 민권을 초월하여 민권을 진압하고 차츰 당권과 민권의 다툼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여 국민당 일당지배의 혼정체제를 비판하고 나섰다.⁵⁴⁾ 그리고 만주문제를 국제연맹에 맡기려는 국민당의 타협적인 양보정책을 비판하면서 민중들의 항일활동을 적극 지지, 보도하였다. 이처럼 《신보》는 만주사변 이후 국민당의 부저항정책과 항일운동 탄압에 반대하면서 정치적으로 비판 성향을 강하게 띠었다.

한편 텐진에서 발행된 《대공보》는 만주사변 직전에 일어난 제남 사건, 만보산사건, 대수해, 나가무라(中村)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이미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고하였다.⁵⁵⁾ 실제로 만주사변이 터지자 《대공보》는 일본의 침략행위와 국민당의 준비 부족을

52) 「中央發表 告全國同胞書」(1931.9.23), 蔣主席 接見請願學生, 《申報》(1931.9.30).

53) 一致對外究待何時, 《申報》(1931.10.5.).

54) 「抗日救國六大主張」, 《申報》(1931.10.10).

55) 「東北對外關係之前途」(1931.7.1); 「萬寶山事件之嚴重化」(1931.7.5); 「空前水災中之外交危機」(1931.9.4); 「中村事件」, 《大公報》(1931.9.10).

함께 비판하면서 신중한 대처를 주장하였다.⁵⁶⁾ 사변발생 후 3일 만에 장지궐(張季鸞)·후정즈(胡政之)는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중일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쌍방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부끄러움을 알려주어 싸우도록 한다[明耻教戰]”는 방침을 내세웠다.⁵⁷⁾ 이러한 언론방침은 과거 일본의 중국침략사와 대일전쟁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상황을 밝히는 것으로 《대공보》 지면에 ‘60년 이래 중국과 일본’이란 제목으로 오랜 기간 연재되었다.⁵⁸⁾ 또한 즉각적인 대일결전에는 반대하고 “참고 견디며 장기간에 걸쳐 준비한 후 지구전으로 적을 쳐부수자”라는 ‘항일 준비론’을 주장하였다.⁵⁹⁾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 중국 여론은 보편적으로 국민당의 소극적인 부저항정책에 비판적이었고, 일본의 본격적인 침략을 우려한 가운데 항일여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갔다.

중국내 한국독립운동 조직들은 만보산사건과 만주 침략에 뒤이은 만주국 성립으로 활동여건이 더욱 불리하게 되었다. 중국인의 ‘혐한(嫌韓)’ 감정뿐만 아니라 만주사변으로 중국여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일제 침략의 선봉대처럼 행동한 한인에 대한 중국의 독립운동 지원과 협조는 기대할 수 없었다. 만보산사건과 만주사변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와 극도로 침체된 한국독립운동의 상황에 대해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⁶⁰⁾

56) 「望軍政各方大覺悟」, 《大公報》(1931.10.6).

57) 「明耻教戰」, 《大公報》(1931.10.7).

58) 이 글은 王藝生이 썼는데 1932년 1월 11일부터 2년 반 동안 계속 연재되었고, 나중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王芝琛, 「大公報史略」, 王芝琛·劉自立, 앞의 책, 18쪽.

59) 「轉禍爲福在共同努力」, 《大公報》(1931.11.26). 항일 준비론의 내용은 첫째, 정치 개방으로 국민역량을 통합할 것. 둘째, 정치·외교 강령을 확정할 것. 셋째, 정부와 국민의 自中之亂에 주의할 것 등 모두 내부 결속을 다지는데 주력한 것이다. 「論政治大計」, 《大公報》(1932.1.15).

60) 김구 저,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27쪽.

1년 전부터 우리 임시정부에서는 운동이 매우 침체한즉, 군사공작을 못한다면 테러공작이라도 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데 왜놈이 중한 두 민족의 감정을 악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만보산사건’을 날조하여, 조선에서 중국인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인천·평양·경성·원산 등 각지에서 조선인 무뢰배가 일본인의 사주를 받아 중국인을 닥치는 대로 타살하였다. 또한 만주에서는 1931년 왜가 9·18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이 굴욕적으로 왜와 강화하였다. 이 전쟁 중에 한인 부랑자들이 왜의 권세를 빌려 중국인에게 극단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중국인의 무식계급은 물론 유식계급 인사들까지 종종 민족감정을 말하는 자를 보게 되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니 우리 정부에서는 지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구를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조직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줌으로써 중국과의 공동항전을 이끌어내야 될 필요성이 절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만보산사건과 한국에서의 중국인배척폭동, 만주사변으로 이어진 일본의 이간질 및 중국 침략행위를 끊을 방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동원할 수 있는 투쟁역량은 무장투쟁이나 외교독립이 아닌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의열투쟁뿐이었다. 이처럼 열악한 조건에 맞서 임시정부가 모색한 새로운 대응책은 1931년 11월 한인에국단의 창립이었다.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을 고양시키고 만보산사건으로 야기된 중국인의 반한 감정의 해결과 일본군의 만주침략으로 조성된 ‘새로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항일특무부대를 조직한 것이다. 당시 일본정보당국은 9·18사변 이후 임시정부의 동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⁶¹⁾

소화 6년 9월 만주사변 후 한국임시정부에서는 누차 국무원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한 결과 임시정부의 퇴세(頹勢)를 만회하고 중국민중의 항일기세가 오르는 것을 기회로 특무대라는 기관을 설(設)하고 불원 북경여행의 예정이었던

61) 『櫻田門外 및 新公園投彈義舉에 대한 供述概要』, 국사편찬위원회 편, 『韓國獨立運動史』 資料 2, 臨政編 II, 1971. 256쪽.

내전(內田) 만철총재를 암살하기로 결정하고 김구를 대장으로 임명하고 차(此)의 계획 병(並) 실행의 일절(一切)을 일임함과 같이 임시정부 자금수입의 반액을 특무대에 지급하기로 하고, ……

만주사변 이후 임시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대일항전을 도와 공동연대를 확고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조직된 한인 애국단의 특무활동은 강대한 일제에 맞서기 위한 약자의 선택이었으며, 독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장기간의 침체국면을 맞이하여 군사력 양성과 전쟁비용을 조달할 수 없었던 임시정부의 유일한 방략이었다.⁶²⁾ 그리고 김구는 아래와 같이 임시정부로부터 일인 고관의 처단, 관공서 파괴 등 특무활동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⁶³⁾

상하이의 길거리에서도 중·한 노동자들 간에 종종 충돌이 일어나던 때, 나는 정부 국무회의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여 암살·파괴 등의 공작을 실행하게 되었다. 공작에 사용하는 돈과 인물의 출처에 대해서는 일체의 전권을 위임받았고, 다만 성공·실패의 결과는 보고하라는 특권을 얻었다.

이러한 배경과 사정으로 결성된 한인애국단은 첫 번째 거사로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의사의 도쿄의거를 결행하였다. 이 의거는 단발성 투쟁이 아니라 임시정부가 선택한 여러 방략 가운데 하나였다. 그 후 의열투쟁은 1932년 2월 12일 상하이 주둔 일본군사령부 폭파계획, 3월 3일의 상하이 일본 비행장 폭파 계획 등이 연이어 기획되어 실행에 옮겨지거나 혹은 좌절되었다.⁶⁴⁾

62) 김광재, 앞의 글, 40쪽.

63) 김구, 위의 책, 327쪽.

64) 김희곤, 「이봉창의사 의거와 상하이사변」, 『이봉창의거의 진실과 왜곡』, 이봉창의사기념사업회, 2006. 94~95쪽.

3. 상하이사변과 윤봉길의 상하이 의거

가. 상하이사변과 중국의 항전

이봉창의거가 터진 다음 날, 중국 각 도시의 신문마다 크게 보도 되기 시작하여 12일까지 집중적으로 기사화되었다. 난징정부의 기관지 성격을 띤 상하이판 《민국일보》와 《중앙일보》를 비롯하여 상하이의 대표적 민영지인 《신보》·《시사신보》 등은 일왕이 처단되지 못한 결과를 아쉬워하거나 이봉창의사를 ‘지사(志士)’, ‘의사(義士)’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우 우호적인 논조를 취하였다.⁶⁵⁾ 이런 중국 언론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일본은 격렬하게 항의하고 사과와 정정보도, 그리고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하였다.

의거 직후 열흘 정도 지나면서 사태는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1932년 1월 18일 오후 일본의 일련중 승려 아키라마수 텐사키(天崎啓升)와 미즈카미 히데오(水上秀雄)가 신도 3명과 마옥산로에 있던 삼우실업사에 나타나 공장노동자들이 의용군을 조직하여 훈련받고 있는 곳을 기웃거리며 간첩인양 염탐하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그러다가 ‘일본 군부에 고용된 중국인 무뢰배’들이 일본승려 일행을 공격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⁶⁶⁾ 본래 이 사건은 일본관동군 참모 타나카 류키치(田中隆吉), 헌병대위 켄분 시게토(重藤憲文)가 공모하여 일으킨 사건이었다.⁶⁷⁾

이후 일본측은 부상당한 승려 한 명이 일본의원에서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일본은 이 사건을 더욱 확대시키고자 특무기관에서

65) 김희곤, 위의 글, 99쪽.

66) 「日人焚燒三友實業社之經過(1932.11), 上海市檔案館編, 『日本帝國主義侵略上海罪行史料檔編』上編, 上海人民出版社, 1997, 9쪽.

67) 田中隆吉, 「上海事變はこして起された」, 『秘められた昭和史』, 河出書房, 1956. 182~83쪽.

일부 낭인들을 규합하여 삼우실업사의 공장을 불태우고 중국 경찰을 살해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을 선동, 시위를 전개하면서 폭력행위를 일삼았다. 1월 24일에는 일본인들 스스로 일본공사 시게미츠 아오이(重光葵)의 공관을 불태우고 중국인들의 소행이라며 중국인들을 무고하였다.

일본 측은 20일에 상하이 일본영사의 이름으로 국민당의 상하이 시정부에게 사과, 범인의 징계, 배상, 항일운동의 단속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48시간 이내에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않으면 일본군이 자유행동에 들어가겠다고 엄포하였다. 상하이 시정부는 난징정부의 뜻을 받들어 일본의 요구를 전부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일본 교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 군대가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답도 기다리지 않고 일본육전대가 1월 28일 심야에 계획대로 20여 량의 장갑차를 출동시켰다. 당시 상하이에 있던 일본군 병력은 군함 30여 척, 비행기 40대, 장갑차 수십 량, 육전대 6천 명이었다. 중국은 19로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9·18사변과 달리 일본군의 공격에 즉각 대응하였다.⁶⁸⁾

아편전쟁 이후부터 상하이는 열강들이 중국을 침략하는 거점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다. 1930년 상하이의 외국투자규모는 일본 3억 8천만 량, 영국 5억 3천4백만 량, 미국 1억 6천3백만 량, 프랑스 1억 3백만 량이었다. 무역액은 일본 1억 7천2백만 량, 미국 2억 5천7백만 량, 영국 2억 9천8백만 량이었다.⁶⁹⁾ 이처럼 서구 열강과 일본은 상하이에 막대한 식민지 권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사변 이래 고조된 중국의 반일, 반침략 투쟁을 경계하며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공동의 운명이었다. 일본 관동군이 다른 지방도 아니고 상하이에서 무력도발한 원인도 이러한 지역적

68) 이를 1·28松滬事變 또는 上海事變이라 부른다. 신승하, 위의 책, 299~300쪽.

69) 外務省 編, 『日本外交文書·滿洲事變』第2卷 第1冊, 160쪽.

특징을 이용한 것이었다.⁷⁰⁾

상하이사변을 일으킨 일본의 의도는 중국이나 열강의 간섭 없이 만주국을 수립하기 위해 이들의 시선을 다른 곳, 곧 상하이로 분산시키는 것이었다.⁷¹⁾ 이 때문에 상하이사변은 만주사변과 달리 전면전을 고려하지 않아 발발 당일부터 정전문제가 거론되었고, 특히 열강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중일 양군의 정전을 희망하여 교섭에 적극 개입하였다.

한편 난징정부는 상하이사변을 만주사변의 연속, 확대로 보고 일본군이 상하이·난징 및 창지양(長江) 유역까지 점령하기 위한 군사행동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수도 난징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1월 30일 중앙기관을 뤼양(洛陽)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⁷²⁾ 사변이 발발한 다음날 장제스는 ‘일면교섭, 일면항쟁’의 방침을 정하였고 행정원장 왕자오밍(汪兆銘)도 같은 방침을 주장하였다. 난징에서 정무와 군사의 총지휘를 담당하고 있던 군정부장 허잉친(何應欽)은 1월 29일 중앙의 방침대로 각성에 “한편으로는 정당한 자위에 힘써 조금의 토지라도 내주지 말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외교 방식을 통하여 각국이 그 조약상의 책임을 집행하도록 한다.”라고 통고하였다.

당시 상하이는 난징정부의 19로군이 일선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1월 23일 군장교의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일본침략에 대응하는 작전 준비를 갖추었으며, 군장 차이팅카이(蔡廷鍇)도 「상하이·오송민중에게 알리는 글」을 발표하여 일본의 침략에 저항할 결심과 군에 대한 시민들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19로군은 이와 같은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세 차례 걸친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난징정부의 저항은 철저하지 못하였다. 일본이 1월

70) 유신순, 앞의 책, 179~80쪽.

71) 유신순, 위의 책, 188쪽.

72) 秦孝儀 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緒編』 1, 433쪽.

23일 제11사단과 제14사단을 상하이에 급파하기로 결정하고 3월 1일부터 네 번째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다. 난징정부는 이를 사전에 알고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 주요 원인은 공산당 홍군에 대한 위초(圍剿)작전으로, 이 무렵 난징정부는 제3차 위초작전에 열중하고 있었다. 여기에 동원된 국민당정부군이 30개 사단에 이르고, 상하이에는 5개 사단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을 뿐이었다.⁷³⁾ 그 결과 상하이에서의 저항은 표면적으로 적극적인 저항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섭을 위한 저항이었으며 일본의 침략을 군사적으로 격퇴하고자 저항한 것은 아니었다.

난징정부의 소극적인 저항 속에는 일본군과는 싸워도 진다고 하는 패전론이 깔려 있었다. 장제스는 동시에 대일과 대공산당의 양동작전을 피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보존하여 공산당 홍군에 대한 위초작전을 진행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⁷⁴⁾ 그러므로 19로군이 초기에는 완강히 저항했지만, 난징정부가 전면전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정부군의 항전의욕은 갈수록 떨어졌고 군수보급도 부족하였다. 다만 국민정부군이 상당기간 버틸 수 있던 데에는 민중의 전폭적인 지원과 동참이 있었기 때문이다. 19로군의 대일항전이 시작되자 상하이는 물론 전국 각지의 의용군이 전투에 참전하였다.⁷⁵⁾ 상하이 각 대학 항일구국회가 청년의용군을 조직하여 훈련을 실시하였고, 상하이시민연합회의용군도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처럼 무장자위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상하이의 주요 지역마다 의용군판사처가 개설되었고, 수많은 단체들이 의용군을 조직하여 시내 곳곳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폈다. 통계에 따르면 19로군의 송호항전에 기록된 참전의용군의 수는 50여 단체에 2만여 명으로

73) 유신순, 앞의 책, 246~48쪽.

74) 유신순, 위의 책, 261쪽.

75) 李新·陳鐵健 主編, 위의 책, 195~96쪽.

작전부대 총병력의 절반을 차지하였다.⁷⁶⁾

국내 및 해외교포들의 지지와 성원도 뜨거웠다. 송호항전이 발발한 이틀 뒤부터 상하이 각계항일단체는 의연금을 모아 19로군을 지원하였다. 상하이시상회, 상하이지방유지회, 주상하이외국영사관 중국직원 등이 1월 30일 하루 동안 모금한 금액이 10만 원에 이르렀다.⁷⁷⁾ 상하이각계 및 전국 각 방면의 위문품과 위로금이 끊이지 않았고 이를 토대로 19로군은 항전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한편 상하이 문화계의 루쉰(魯迅), 마오둔(茅盾), 예성야오(葉聖陶), 위다푸(郁達夫), 후스(胡適), 저우위통(周子同) 등 43명의 저명인사들은 연합으로 ‘세계에 알리는 글’을 발표하고 전 세계에 일제의 중국침략 야심을 폭로하면서 중국 민중의 반제투쟁을 지원해 주도록 호소하였다. 2월 7일에는 리다(李達), 양한성(陽翰笙), 저우구청(周谷城) 등 저작가 129명이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일제의 상하이침공에 따른 만행을 폭로하면서 전국 민중의 총파업과 수업거부에 의한 농민, 공인, 상인, 학생, 군인의 일치단결을 호소하였다. 또한 《문예신문》은 2월 3일 전시특간으로 『봉화』를 발행하여 13기까지 출판하였다. 여기서는 19로군의 용감한 항전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국내외 각계의 큰 호응을 얻었다.⁷⁸⁾

《신보》는 1932년 1월, 일본군이 상하이를 공격하자 “상하이에서의 전쟁은 상하이만의 전쟁이 아닌 전민족의 생사가 걸린 전쟁”이라면서⁷⁹⁾ 항일여론을 고취시켰다. 특히 장광나이(蔣光鼐)·차이팅카이 등이 정부의 부저항 훈령을 거부하고 19로군 및 상하이의용군을 통솔하여 일본군과 싸우고 있는 사실에 큰 의의를 두었다.

76) 『“一二八”抗戰中上海人民的鬪爭』, 上海人民出版社, 1960, 25쪽.

77) 19로군 駐滬辦事處 主任 范志陸이 蔡廷鍇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모인 위로금은 약 9백여만 원이었다. 『蔡廷鍇自傳』上, 300쪽.

78) 李新·陳鐵健 主編, 위의 책, 199~204쪽.

79) 「敬告國民」, 《申報》(1932.1.31).

이후 《신보》의 관련보도는 19로군의 지원활동에 동참을 촉구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하이 금융시장과 민심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⁸⁰⁾ 《신보》의 논조는 일관되게 항일무장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이며 신속한 대일항전을 촉구하였다.⁸¹⁾ 아울러 만주국 수립과 관련하여 《신보》는 제대로 된 정부의 대일방침이나 자구책이 없이 국제연맹에 의존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였다.⁸²⁾

상하이사변 이후 발표된 《대공보》의 논설도 19로군의 항전을 적극 지지하였다.⁸³⁾ 대일항전만이 세계의 동정여론을 불러일으켜 외교적으로 난국을 타개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⁸⁴⁾ 또한 전략전술상 대일전쟁은 단기전보다 지구전이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장기전을 주장하였다.⁸⁵⁾ 《대공보》는 국민당의 정국대응을 논평하면서 만약 상하이정전협정이 체결되어 동북 3성을 잃고서도 무력회복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후 정치상 모든 문제는 “항일어모(抗日禦侮)”의 이름 아래에 논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⁸⁶⁾ 이처럼 일본군의 상하이 침략에 19로군이 항전으로 맞서자 상하이에는 물론 전국의 민중들이 조직적으로 19로군을 지지 후원하였으며, 그런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 무렵 상하이 거류 한국인들도 신속히 항일활동을 개시하였다.⁸⁷⁾ 상하이거류 한국교민단은 위로대를 조직하고 면포 200포와

80) 「愛護金融」, 《申報》(1932.2.7).

81) 「追悼滬戰殉國將士」, 《申報》(1932.5.28).

82) 「對日交涉方針之質疑」, 《申報》(1932.6.27).

83) 轟毀上海之極端的暴行(1932.1.31.), 「全國同胞只唯一條路」, 《大公報》(1932.2.2).

84) 「上海戰事之重要性」, 《大公報》(1932.2.9).

85) 「興亡岐路生死關頭」, 《大公報》(1932.2.20).

86) 「論保障政治自由之亟務」, 《大公報》(1932.4.30.). 실제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대공보》는 집권세력의 무능과 부도덕을 비판하면서 난징정부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愿國民清夜自問」, 《大公報》(1932.5.7).

87) 石源華 編著, 『韓國獨立運動與中國』, 上海人民出版社, 1994. 189~91쪽.

의약품 등 약 1천 원에 해당하는 구호품을 마련하여 제19로군을 지원하였다. 2월 1일에는 독립당 특무대가 「상하이동포에 고하는 글」을 발표하여 중국을 원조하고 일본에 타격을 주자고 호소하였다. 2월 27일 상하이에 있는 한인 단체들은 대만인 단체와 함께 일본의 상하이침략을 고발하는 한편, 군벌과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민주국가를 실현하며, 피압박민족인 한인과 대만인이 함께 공존공영과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자는 내용의 유인물을 비행기를 이용하여 살포하였다. 또한 사회주의 성향의 상하이한인반제동맹은 2월 18일에 『삼일전선』을 창간하였고, 그 직후 『반제전선』으로 다시 고쳐 반제국주의운동을 선전하였다.⁸⁸⁾

19로군의 송호항전에는 상하이 한인유학생들도 대거 동참하였는데 복단대학·기남대학 등 상하이의 각 대학생들이 항일의용군을 조직하여 주로 선전, 교육활동을 담당하였다.⁸⁹⁾ 당시 복단대학에 유학중이던 안병무는 학생의용군 일원으로 중국 학생들과 함께 전 시복무공작 기구를 만들고 위로·통신·운수·교제·문서의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 일주일 이상 활동하였다.⁹⁰⁾ 김석(金皙)은 상하이 학생연합회가 조직한 중국구국학생의용군에 가입하여 19로군을 위한 의연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⁹¹⁾ 한인학생들은 구호대를 조직하여 전선에서 부상당한 중국 군인들을 치료하였고,⁹²⁾ 박시창(朴始昌)·오명(吳明) 등은 전선으로 직접 나아가 중국군과 함께 싸웠다.⁹³⁾ 이렇게 상하이거류 한인과 유학생들은 일본군의 침략을 계기로 촉발된 19로군의 대일항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강력한 연대 의식을 발휘하였다.

88) 신주백, 위의 글, 121~22쪽.

89) 「一月光華 旦復旦兮」, 『復旦大學志 第一卷』, 21쪽.

90) 안병무, 「상하이전쟁에 참전한 한국청년」, 『사상계』, 1965년 1월호, 264쪽.

91) 손과지, 위의 책, 261~63쪽.

92) 「不逞鮮人金皙檢舉」, 『日本外務省特殊調査文書』 26, 727~728쪽.

93) 안병무, 위의 글, 251~59쪽.

당시 상하이에 거류하고 있던 윤봉길은 상하이사변이 발발하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간략하지만 상하이사변의 의미와 현황, 열강의 반응, 난징정부의 대응 등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전하고 있다.⁹⁴⁾ 윤봉길은 상하이 현지에서 일본군의 침략행위를 직접 경험하였으며, 그만큼 중국의 시국상황과 열강의 대응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같은 시기 상하이에서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김구는 중국과 공동항일전선을 통해 침체된 독립운동의 국면을 전환하고 약화된 한중연대를 일거에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만보산사건과 한국내의 중국인배척폭동으로 야기된 중국인의 ‘혐한’ 분위기는 만주사변으로 더욱 팽배해졌고, 상하이사변을 계기로 최고조에 달하였다. 이런 참담한 상황은 김구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⁹⁵⁾

왜구의 중한 양 민족에 대한 ‘감정악화 정책’의 일환으로 ‘만보산사건’이 터졌다. 이를 기회로 중국 상인과 노동자들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여 조선 곳곳에서 한인 무뢰배들이 총동원되어 그들을 만나는 대로 때려죽이는 소동이 벌어졌다. 종류 이상의 중국인들은 만보산사건이 왜구의 간계임을 간파하였지만, 하류계급 사이에서는 “고려인이 중국인을 때려죽인다.”는 악감정이 동경사건(이봉창 의거) 이후에도 좀체 사그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1932년 1·28 상하이 전쟁으로 왜병이 민가에 함부로 불을 지를 때 최영택 같은 악한을 사주하여 중국인 집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물을 약탈하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 이로 인해 주로 자동차와 전차의 한인 검표원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구타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상하이에 위치한 대한민국임시정부도 내부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었다. 임시정부는 초창기와 달리 1923년 국민대표회의가

94) 「상하이사변에 즈음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1932년 1월 31일), 『매헌윤봉길 전집』 제2권, 794~96쪽.

95) 김구, 위의 책, 340쪽.

결렬된 이후 현저히 약화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 가서는 해외동포들의 현금도 거의 중단되고 독립운동가들도 대부분 상하이로 떠나버려 소수의 임시정부 고수파들이 외롭게 임시정부의 간판을 지키고 있었다. 특히 1932년에는 일본군의 상하이사변과 상하이점령으로 연초부터 프랑스조계 안에 있던 임시정부는 완전히 일본군의 포위 안에 든 것이나 다름없이 고립되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떨어지고 말았다.⁹⁶⁾ 이러한 임시정부의 위기상황과 연일 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있던 중국인들의 항일 열기는 상하이에 머물며 독립운동에 헌신할 기회만 찾고 있던 윤봉길을 크게 고무시켰다.⁹⁷⁾

나. 상하이의거와 중국의 반항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으로 중국의 국난상황이 최고조에 이를 무렵 윤봉길은 임시정부의 김구를 찾아가 독립운동을 숙의하고 있었다. 이때는 상하이사변이 끝난 뒤였으나 아직도 중일 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한국의 광복을 위한 길이라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싸울 것을 각오했노라고 자신의 심경을 아래와 같이 김구에게 토로하였다.⁹⁸⁾

제가 채소바구니를 등 뒤에 메고 날마다 홍코우 방면으로 다니는 것은 큰 뜻을 품고 천신만고 끝에 상하이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중일전쟁도 중국에서 굴욕적으로 정전협정이 성립되는 형세인즉,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땅히 죽을 자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동경사건과 같은 경륜이 계시 줄 믿습니다. 저를 믿으시고 지도하여 주시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96) 신용하, 「윤봉길의 상하이홍구공원 의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논문집』(하), 국가보훈처, 1999. 175쪽.

97) 김구는 일기에서 19로군의 항전상황과 일본군의 만행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며 항전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구, 위의 책, 328~29쪽.

98) 김구, 위의 책, 331쪽.

상하이에서 윤봉길과 김구의 만남은 몇 차례 중일간의 충돌을 거친 직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일본군은 상하이로 무력 점령한 후 승리에 도취하여 1932년 일왕의 생일 경축일인 천장절(天長節)을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전승경축식과 겸해서 외국인 공동조계인 홍코우공원에서 거행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하이 일본영사관은 《일일신문》에 “4월 29일 홍코우공원에서 천장절 축하식을 거행한다. 그날 식장에는 물병 하나와 점심으로 도시락, 일본 국기 하나씩을 가지고 입장하라”고 포고하였다.⁹⁹⁾

김구와 윤봉길 의사는 이 행사를 일제에게 결정적 타격을 가하고 독립운동을 크게 고양시킬 수 있는 일대 반전의 특공작전을 감행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이날의 전승경축식에는 상하이 주둔 일본군사령부의 총사령관 이하 군·정 수뇌들이 모두 모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 작전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중국군이 막대한 희생을 내면서 항전하고도 이기지 못해 상하이를 내어준 일본침략군 총사령부 전체를 폭파시켜 버리는 것과 동일한 전과를 낼 수 있는 것이었다.¹⁰⁰⁾ 또한 이를 계기로 그동안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대일 공동전선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였다.

이전부터 이봉창의사와 같은 ‘사생취의’의 신념을 김구에게 밝혔던 윤봉길은 곧바로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1932년 4월 26일 한인애국단 단장 김구 앞에서 혈서로 아래와 같은 선서문을 써서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였다.¹⁰¹⁾

나는 적성(赤誠)으로써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屠戮)하기로 맹세하나이다.

99) 김구, 앞의 책, 332쪽.

100) 신용하, 앞의 글, 49쪽.

101) 「한인애국단 가입 선언문」, 『매현윤봉길전집』 제5권, 793쪽.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윤봉길은 자신의 의거가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이며, 동시에 중국을 침략하는 일본군의 장교를 죽이려는 것으로 곧 한중 공동항전의 초석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한편 윤봉길이 의거에 사용한 폭탄은 김구가 중국군 장교로서 제19로군 병기창 주임으로 복무하고 있던 김홍일(金弘壹, 중국명 王雄)에게 부탁하여 중국인 기술자 왕보어시우(王伯修)의 지도 밑에서 특별히 제조한 고성능 폭탄으로 실질적인 한중연대의 결과물이었다.¹⁰²⁾

윤봉길 의사가 결행한 홍코우공원의 폭탄 투척은 대성공을 거두어 일본 거류민단장 가와바다 테이지(河端貞次)는 즉사하고, 상하이 파견군사령 요시노리 시라카와(白川義則) 대장은 중상으로 입원했다가 5월 26일 죽었다.¹⁰³⁾ 또한 일본공사 시게미츠 아오이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었으며, 제3함대 사령관 노무라 키치조(野村吉三郎) 중장은 실명하였고, 제9사단장 우에다 켄키치(植田謙吉) 중장과 상하이총영사 무라이 쿠라마츠(村井倉松), 거류민단 서기장 토모노 성(友野盛) 등 단상에 있던 군·정 수뇌 7명이 모두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였다.¹⁰⁴⁾

윤봉길의거는 1932년 4월 29일 오후 1시경 뉴스로 보도되기 시작하여 각국의 주요 신문들이 일면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세계를 경악케 하였다.¹⁰⁵⁾ 의거 당일 상하이의 석간신문 《시사신보》가 “오늘 홍코우공원에서 일본인들 천장절 기념식 시게미쓰, 시라카와, 무라이, 노무라 등 부상 열병 도중 돌연 비가 내림과 동시에

102) 김구, 앞의 책, 332쪽.

103) 「上海=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顯末」(昭和 7年 7月), 『매헌윤봉길전집』 제2권, 492쪽.

104) 「上海=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顯末」(昭和 7年 7月), 『매헌윤봉길전집』 제2권, 532~36쪽.

105) Bomb at Shanghai wounds 5 High Japanese Officials; Shirakawa and Uyeda Hit, *The New York Times*, 1932.4.29.(『매헌윤봉길전집』 제2권, 816쪽)

폭발물 폭발”이란 제목으로 첫 보도를 한 이래,¹⁰⁶⁾ 《시보》·《신보》·《상하이보》·《대만보(大晚報)》·《중앙일보》등이 윤봉길의사의 의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러한 신문 보도는 6월까지 두 달여 동안 거의 매일 계속되었다.¹⁰⁷⁾

일본당국이 철저히 보도통제를 하였지만 중국 신문들은 그와 상관없이 첫날부터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¹⁰⁸⁾ 주요 내용은 홍코우공원의 기념식장 모습 및 폭탄투척 상황, 윤봉길의사의 체포와 심문, 일제요인의 사망 및 부상, 안창호와 한인의 체포 등 윤봉길의거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기사화하였다. 우선 윤봉길의거에 대해 중국인들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공동항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¹⁰⁹⁾

이번에 일본제국주의의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폭탄을 투척한 이는 망국민인 한국인이다.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한 그의 장거는 누구의 청탁이나 애걸에 의한 것이 아니다. 동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인간 말종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조선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의연히 일어난 것이다. 9·18사변 이후 우리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제연맹에 도움을 애걸하였다. 그 결과는 어떠한가?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조선인이 던진 폭탄 하나만도 못하지 않은가! 이 조선인은 물론 중국의 복수를 위해 폭탄을 던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의 장거는 조선인과 중국인이 공동의 적을 향해 똑같은 적개심을 지니고 있음을 표시한 것이다. 우리와 똑같은 죽을 향해 우리와 똑같은 적개심을 가진 피압박국가야말로 대일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외교적 동맹군으로 끌어들여야 할 존재이다.

특히 상하이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의 사망과 일왕의 애도에

106) 今日虹口公園 日人慶祝天長節 重光白川村井野村炸傷 閱兵時天忽下雨同時飛來炸彈, 『時事新報』(1932.4.29).

107) 윤봉길의거에 관한 중국신문의 반응은 한시준,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의거에 대한 중국신문의 보도』, 위의 책, 43~86쪽 참조.

108) 「上海爆彈事件ニ關スル件」(1932.4.30), 『매헌윤봉길전집』 제2집, 725쪽.

109) 「日要人被炸吾人應有之認識」, 『上海日報』(1932.5.1).

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퇴역했던 시라카와는 1932년 1월 상하이사변이 발발하자 상하이파견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다시 군복을 입고 송호전쟁을 총지휘하였다. 이 때문에 그는 일본군의 상하이침공을 상징하는 핵심 인물로 그의 부상정도와 병세부터 사망하여 일본으로 유해가 되어 돌아갈 때까지 낱낱이 보도하고 있다. 중국 신문은 시라카와의 사망 소식을 접한 중국인들이 폭죽을 터뜨리며 환호하였다고 전하며,¹¹⁰⁾ 시라카와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윤봉길을 사형에 처할 것 같다고 보도하였다.¹¹¹⁾ 실제로 윤봉길의사를 곧바로 사형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윤봉길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의거이후 중국 신문들은 안창호 체포와 함께 프랑스로거에 거주하는 한인들에 대한 일제의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 소식도 전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일제 측에 한인들을 수색 체포하도록 허락한 프랑스로거 당국의 조처를 비난하고 한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었다.¹¹²⁾ 중국신문의 보도를 통해 당시 중국당국과 중국인들의 윤봉길의거에 대한 이해와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같이 동병상련의 연대감에 입각한 공동항전의 의지를 강하게 표시하였다.

19로군의 송호항전은 굴욕적인 패배로 끝났지만 윤봉길의사의 상하이의거로 일제침략의 원흉들을 섬멸하게 되자 중국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김구는 “4·29사건으로 인하여 중국인들의 한인들에 대한 감정은 놀랄 만큼 호전되었다.”라고 밝혔다.¹¹³⁾ 상하이의거는 위기에 처한 한국독립운동세력이 중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항전의 연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훌륭한 방책이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110) 「白川死亡之街談巷議」, 『上海報』(1932.5.25).

111) 「日人將殺 尹奉吉句葬白川」, 『上海報』(1932.5.31).

112) 「關於逮捕韓人事件 法租界當局之聲明」, 『時報』(1932.5.13).

113) 김구, 앞의 책, 340쪽.

윤봉길의사는 상하이의거 뒤 체포된 바로 직후 일본헌병대의 심문에서 자신의 행동의 성과와 의의를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¹¹⁴⁾

현재 조선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반항하여 독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강대국이 피폐해지는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야말로 조선은 물론이고 각 민족이 독립할 수 있다. 현재의 강국도 나뭇잎처럼 자연히 쇠락하는 시기가 오는 것은 필연적이며, 우리들 독립운동가는 국가 성쇠의 순환을 앞당기는 것이 그 역할이다. 물론 한 두 명의 상급 군인을 살해한다고 해서 독립이 쉽게 될 리는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과 같은 것도 독립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며, 단지 기대하는 것은 이로 인하여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아가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명료히 하는데 있다. 현재 세계지도에 조선은 일본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은 조선의 존재를 조금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이러한 때 조선이라는 관념을 이들 모두의 뇌리에 깊이 새겨 넣은 것이 장래 우리의 독립운동에 관하여 결코 헛된 일이 아닐 것임을 믿는다.

여기에서 윤봉길의사는 비록 자신의 투쟁이 지극히 작고 미미한 것이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와 함께 투쟁하면 반드시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요, 이것을 앞당기기 위해 자신은 독립운동의 작은 불씨가 되어 한국인을 각성시키고 세계인에게 한국의 존재를 각인시킨다는 것이다.

더불어 상하이의거는 만보산사건이래 나빠진 중국인의 대한감정을 해소하고 한중연대에 의한 한국독립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의거가 끝난 십여 일 후 김구는 「홍코 우작안의 진상」이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신이 의거를 일으킨 이유와 명분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¹¹⁵⁾

114) 「上海=於ケル尹奉吉爆彈事件顛末」(昭和 7年 7月), 『매헌윤봉길전집』 제2권, 143~144쪽.

115) 『매헌윤봉길전집』 2, 97쪽.

일본은 강력한 힘으로 한국을 병합하고 이어서 만주를 정복하고 나아가 이유 없이 상하이에 침입함으로써 동양 및 세계의 위협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세계 평화의 적, 인도와 정의의 파괴자에 대해 복수할 결심을 한 것이다. 맨 처음으로 나는 이봉창을 동경에 파견하였고, 그는 1월 8일에 일왕을 습격했다. 이어서 나는 일본 군대 장관 등을 살해하기 위해 윤봉길을 4월 29일 홍구공원에 보냈다.

김구는 일제의 침략행위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적이요, 인도와 정의를 파괴하는 세력임으로 이를 징벌하기 위해 이봉창과 윤봉길을 내보냈다는 주장을 폈다.¹¹⁶⁾ 여기서 일제 침략에 맞선 김구의 반침략적 항전의지가 잘 드러난다. 또한 1932년 12월 1일 출판된 『도왜실기』에 실린 「홍코우작안의 진상」이란 글에서 홍코우공원 의거의 극적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였다.¹¹⁷⁾

이는 실로 일본제국주의의 몰락을 선고하는 조포이었고, 살인방화의 흉범을 징벌하는 벽력이었다. 이 우렁찬 소리를 듣고 소리 높여 통쾌를 부르짖은 사람이 어찌 삼천만 한인뿐이었으랴? 사역의 중국인도 당연히 똑같은 감격을 느꼈을 것이다.

이 글에서 김구는 윤봉길의사의 쾌거로 느끼는 감격을 한국인만이 아니라 중국인 모두가 함께 갖는 것이라면서 공동항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당시 중국의 최고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자신의 일기에 의거 당일의 느낌에 대해 “비록 병력을 동원하며 전쟁을 탐하는 자라도 깨달은 바가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¹¹⁸⁾ 그는 윤봉길의사의 상하이의거를 일본의 침략정책에 대한 경중으로 인식하였고,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윤봉길

116) 김희곤, 「윤봉길 현양 자료를 통해 본 상하이의거의 역사적 의미 - 광복 이전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3집 참조.

117) 『매헌윤봉길전집』 2, 71쪽.

118) 「先總統 蔣公有關大韓民國獨立運動日記摘錄」, 『매헌윤봉길전집』 6, 811쪽.

의사의 의거는 불편해진 한중관계를 일거에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형식적 선언적으로만 이루어진 대일 공동항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4. 맺음말

윤봉길의사가 독립운동의 결의를 품고 중국 상하이에 도착한 1931년 5월부터 홍코우공원에서 의거를 실행한 1932년 4월 29일까지 중국에서는 일본의 모략적인 침략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 1931년 7월의 만보산사건은 일제가 만주침략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한국인을 내세워 중국농민들과 갈등을 조장하고, 한국에 왜곡 보도함으로써 중국인배척폭동을 유발시킨 계략이었다. 당시 중국신문의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인의 대한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고, 한중 관계도 균열되어 중국내 한국독립운동은 침체국면에 빠졌다. 곧이어 일본의 무력행사를 수반한 만주사변과 상하이사변은 중국의 국가적 위기의식과 항일열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상하이사변은 19로군을 주축으로 중국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장기간 저항했지만 결국 패함으로써 중국인들의 분노와 원성이 높았다.

이 시기 상하이에 머물며 독립운동의 의지를 다지고 있던 윤봉길의사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일제의 중국침략에 일격을 가하고, 한국독립을 앞당길 수 있는 방책으로 홍코우공원 의거를 결행하였다. 이 의거는 한국의 독립·자유를 위한 항일투쟁으로서 김구와 윤봉길에 의해 기획 단계부터 한중 공동항전이란 대의를 가지고 시작되었고, 중국측의 협조를 얻어 실행되었다. 의거준비단계

에서 중국인이 한인애국단에 거사자금을 지원하고, 김홍일을 통하여 상하이병공창의 중국인으로부터 고성능폭탄을 제공받은 사실로 중국측의 협조가 확인된다. 그러나 의거의 기획, 준비, 실행, 사후 처리 등 전 과정이 김구와 윤봉길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상하이의거가 한국독립운동사와 한중공동항전에 미친 현실적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우선 이 의거는 중국을 침략한 일본 상하이파견군 총사령관을 비롯한 군·정 수뇌들을 죽이거나 부상당하게 함으로써 일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후 상하이 주둔 일본군은 더 이상의 확전을 단념하고 1932년 5월 5일 중국과 정정협정을 체결하였다. 중국인들과 열강의 여론은 대부분 정정협정이 체결되어 일본군이 상하이로부터 철수할 것을 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윤봉길 의사는 일본의 침략행위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여 패배감에 사로잡힌 중국인들의 항전의지를 다시 고조시켰다.

한 달 이상 계속된 항전에도 불구하고 상하이를 점령당한 중국인들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로 침략을 주도한 일본의 군·정 수뇌들이 궤멸되자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여 만보산사건 이후 나빠진 중국인의 대한감정은 완화되었고, 한국인에 대한 감사와 협조로 급반전되어 중국내의 한국독립운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¹¹⁹⁾ 특히 장제스는 “중국의 백만 대군이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한 청년이 해냈다”며 윤봉길의거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그의 배려로 중국군관학교에서 백여 명의 한국청년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조선의용대 및 한국광복군의 핵심세력이 되었다.¹²⁰⁾ 이렇듯 윤봉길의거는 한국독립운동의 오랜 숙원인 중국과의 반일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1930년대 한중

119) 「日本要人昨午被炸」, 《申報》(1932.4.30).

120) 김구, 앞의 책, 355~57쪽.

공동항전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다.¹²¹⁾

윤봉길의거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활성화 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 의거로 고무된 국내외 동포들이 임시정부의 중요성과 독립운동을 다시 인식하여 재정적 정신적 지원을 재개하였다.¹²²⁾ 그뿐 아니라, 난징정부와 각 민간단체의 재정 지원과 편의 제공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임시정부는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는 한국독립운동의 중심세력으로서 위상을 굳힐 수 있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3·1운동 이후 일제의 간교한 문화통치로 희석된 한국인의 독립정신을 다시 일깨워 국내외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준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제적으로도 윤봉길의거는 한국인의 항일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상하이사변을 열강이 주시하는 가운데 외국인 공동조계 내의 홍코우공원에서 열린 전승기념행사에 한인청년의 의거로 일본침략군 수뇌들이 치명상을 입었다. 이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한국독립운동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세상에 알리는데 성공하였다.¹²³⁾

무엇보다 윤봉길의거는 1930년대 들어서 본격화된 일본의 중국 침략에 가장 강력히 맞선 의열투쟁이자 적극항전이었다. 곧 난징정부의 ‘부저항노선’이나 ‘일면교섭 일면항전’의 제한적 대응과 비교되는 것으로, 대일항전의 물꼬를 튼 점에서 한중공동항전의 선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윤봉길의거 이후 소원해진 한중관계가 곧바로 회복되고 김구와 장제스 사이에 공동항전의

121) 김광재, 앞의 글, 39쪽.

122) 김구는 의거 이후 미주·하와이·멕시코·쿠바 등지의 한인교포들의 임시정부에 대한 성원이 대단하였다고 밝혔다. 김구, 위의 책, 341쪽.

123) ‘Some strange phases of the bombing incident’, *The China Weekly Review*(Vol. 60 No.10), 1932.5.7. p.316. (『매헌윤봉길전집』 제3권, 715쪽)

실질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원고투고일: 2015.12.30, 심사수정일: 2016.2.16, 게재확정일: 2016.2.19.]

주제어 : 윤봉길의거, 만보산사건, 만주사변, 상하이사변, 대한민국임시정부,
김구, 장제스, 홍콩우공원, 한인애국단, 한중공동항전

<ABSTRACT>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s, and Korea and China's
Joint Resistance after Shanghai Incident in 28th of January

Lee, Jae-ryoung

This paper will uncover the truths behind Korea and China's joint resistance against the Japanese colonial era through examining the background, objective, characteristic, and significance of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April 29th, 1932, during the Manchurian Incident.

From May, 1931, when Yoon Bong Gil arrived in Shanghai, China, with the resolve to take part in Korea's independence movements, to April 29, 1932, when he carried out his patriotic deeds at Hongkou Park, Japan's planned acts of aggression continued. The Wan Bao Shan Incident was manipulated by Japan as an excuse to invade the Manju area. The Japanese aggravated conflict between Koreans and Chinese farmers, and through releasing distorted reports in Korea, induced boycott riots against the Chinese. This incident created emotional rifts between the two nations, and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within China fell into stagnation. The subsequent exertion of military force by the Japanese during the Manchurian and Shanghai incident awakened China's national awareness of crisis and aroused resistance against Japan throughout the country. Especially, the eventual defeat of resistance forces coordinated around the 19th Chinese Rogun greatly enraged the Chinese.

Yoon Bong Gil, who was honing his burning soul for independence

movements during this period, chose patriotic deeds as his means of sabotaging Japan's invasion of China, and ultimately hasten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s were kinds of resistances against Japan to achieve Korea's independence and freedom, and were planned from beginning stages with Kim Gu with ambitions of Korea and China coordinating their powers to start a Korea-China Joint Anti-Japanese War. With the cooperation of China, his plans were able to be executed. During preparation stages, the Chinese supported the Korea Patriotic Party, and through the help of Kim Hong Il, Yoon was able to receive high explosive bombs from the Chinese. However, except that Chinese influence on this matter was limited. The preparation, execution, after management, and all other affairs related to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s were mainly coordinated by Yoon Bong Gil and Kim Gu.

The practical and historical impact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s had on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are substantial. His patriotic deeds first heavily damaged the Japanese empire by killing or injuring military and government leaders including expeditionary force lieutenant Yoshinori Shirakawa. The Chinese, who felt a sense of defeat, once more forged their wills for resistance. Furthermore, negative emotions the Chinese held towards Koreans after the Wan Bao San incident rapidly changed to appreciation and cooperation, creating favorable conditions for Korean independence movements in China. Also, the patriotic deeds invigorated the independence movement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ere in stagnation. Inspired compatriots within and out of the country, re-enlightened on the importance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ts independence movements, resumed finan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Overall, Yoon Bong Gil' s patriotic deeds created an opportunity for Korea's independence movement's long cherished wish, a united front with China, to develop, opening Korea/Chinese joint resistance against Japan in the 1930s.

Key Words : Yoon Bong gil's patriotic deed, Wan Bao Shan Incident, Manchurian Incident, Shanghai Incident,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n, Kim, Gu, Jiang Jie Shi, Hongkou Park, Korea Patriotic Party, Korea and China's Joint Resistance

